

북구, 민선 9기 첫 추경 1조3천200억 확정

1천707억 증액...민생·안전·복지 증점
부끄러니 발행·폭우 피해 복구 등 반영
신수정 청장 “지역 성장동력 창출 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이 1조3천2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1천707억원 늘어난 1조3천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강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화폐 ‘부끄러니’ 발행 25억7천만원을 비롯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8천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1억6천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9천만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발행 때마다 조기 소진됐던 부끄러니의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해 11억6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북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추가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15억원을 편성하고 하수암거 보수·하수도

정비 4억6천만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2억4천만원,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1억1천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예산도 포함됐다. 수곡천 재해복구에 115억원, 구 산동교 재해복구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22억원과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5억2천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천400만원 등을 증액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억6천만원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2억5천만원도 새롭게 편성해 임산부와 여성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한다.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8억8천만원,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북구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3억원 등이 추경에 포함됐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확정된 예산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제2회 행정안전부·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공〉

동구, 고향사랑기부대상 금상...2년 연속 수상 ‘꽤저’

광주극장 보존·발달장에 청소년 지원 등
100억 돌파...특교세 4천500만원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광주극장 보존과 발달장에 청소년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성과를 인정받아 고향사랑기부대상 금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지난 4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제2회 행정안전부·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금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4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동구는 지난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구 약 10만명 규모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낮은 재정자립도와 자체 자원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역 문화자산인 광주극장을 보존하는 사업을 비롯해 발달장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돕는 ‘E.T야구단’,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

업을 등 지정기부 사업으로 발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례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동구는 남도김치와 굴비 등 지역 대표 식품을 중심으로 담례품을 구성해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유도해 3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동구를 믿고 응원해 주신 전국의 기부자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값진 결과”라며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산구·민주당, 지역 현안 해결 맞손

정책협의회서 반도체 클러스터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6일 “최근 구청 윤상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을 지역 위원회와 2026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박병규 구청장과 박균택·임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광산구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서남권 최대 환승 거점 조성사업을 전남광주특별시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연결 도로망을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각 지역위원회의 생활 밀착형 현안 제안도 이어졌다. 광산갑 위원회는 광주 명화김치촌 지정·운영과 야외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요구했다. 광산을 위원회는 첨단1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신창동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풍



영정전 스마트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했다.

박균택·임문영 위원장은 논의된 7개 안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산구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현안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지역 역량을 결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육근 기자

남구 동행카드 36억 발행

14일부터 판매...할인율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6일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하반기 남구동행카드 총 36억원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구동행카드는 구청의 10%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5%를 더해 총 1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로 앞서 상반기에는 40억을 투입해 5일 만에 완판됐다.

하반기 동행카드는 상반기처럼 5만원권과 10만원권, 50만원권까지 금액에 따라 선불 카드 3종류로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15%가 적용된다.

동행카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소재한 광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살 수 있으며, 가맹점 4천38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형우 기자

서구, 행정혁신 AI 활용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직원식당 예약시스템’ 최우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직원들이 AI를 실제 행정업무에 접목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업무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2026년 상반기 행정혁신 AI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지승 양양시동복지과 주무관의 ‘직원식당 대기줄 분산 예약 시스템’이 차지했다. 직원들이 식당 이용 시간대를 사전에 예약하도록 해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에는 정보소 문화예술과 주무관의 ‘보조금 정산 전용 AI’와 이지혜 돌봄정책과 주무관의 ‘공모서 작성 AI’가 이름을 올렸다.

보조금 정산 전용 AI는 정산자료 분석과 정산서 작성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공모서 작성 AI는 공모지침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예산 검증, 모의심사, 발표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며 실제 공모사업 선정과 5천만원의 사업비 확보에도 활용됐다.

서구는 후보 10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발표심사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을 가렸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최종심사 점수의 30%를 반영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직원들이 AI를 직접 배우고 업무에 활용하는 적극행정이 실질적인 행정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원의 도전과 성장을 구상 행정의 변화로 연결해 주민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